

삼성 구자욱, 왼쪽 갈비뼈 실금...박진만 감독 "복귀 시기 판단 어려워"

등록 2026.04.14 17:46:13



[서울=뉴시스]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구자욱이 12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쏘 KBO리그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3루타를 친 뒤 기뻐하고 있다. (사진=삼성 라이온즈 제공) 2026.04.12. *재판매 및 DB 금지

[대전=뉴시스]문채현 기자 =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구자욱이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. 복귀 시점도 정확히 알 수 없다.

삼성은 14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리는 2026 신한 쏘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구자욱을 1군 엔트리에서 말소했다.

이날 경기 전 취재진을 만난 박진만 삼성 감독은 "마음이 아프다. 구자욱 선수는 갈비뼈 왼쪽에 미세한 실금이 갔다. 병원에서도 처음 보는 거라고 하더라"고 전했다.

그는 "되짚어보니까 (공을) 쳐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, 슬라이딩을 할 때 태그를 피하려고 하다가 역모션이 걸리면서 조금 통증이 발생한 것 같다"며 "우선 당분간은 휴식이 필요한 상황"이라고 덧붙였다.

그러면서 "가슴 쪽이라서 겁스도 안 되고 무조건 쉬어야 하는 상황이다.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한다"며 "우선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. 기간은 아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. 통증이 어느 순간에 없어지느냐에 따라 빠를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"고 안타까워했다.

삼성으로서는 대형 약재다. 앞서 김성윤, 김영웅이 부상으로 빠진 데 이어 구자욱까지 이탈했다.

박 감독도 "부상 선수들이 갑자기 많이 나왔다. 원래 우리 라인업에 좌타가 항상 많았는데 오늘은 우타가 더 많다"며 "선수들이 돌아오기 전까진 지금 잘해주고 있는 투수들로 잘 버텨야 할 것 같다"며 씩씩한 미소를 지었다.

구자욱의 공백에도 최형우에게 수비 부담이 가중되지는 않을 전망이다.

박 감독은 "최형우 선수는 너무 힘들어해서 한 주에 한 번 정도만 나갈 것 같다. 일주일에 두 번을 밀어붙이려고도 했는데 너무 힘들어하더라. 배트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려고 한다"고 설명했다.

타선에선 전력 이탈이 크지만 그럼에도 에이스의 복귀는 반길 만한 소식이다.

삼성의 토종 에이스 원태인은 지난 12일 부상 복귀전을 치러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3⅔이닝 4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했다.

이에 대해 박 감독은 "구위나 구속은 좋았는데 아직 첫 게임이다 보니 제구나 커맨드에선 조금 흔들림이 있었다. 그래도 원태인이 마운드에 있냐 없냐가 우리 팀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것 하나만으로 큰 힘이 될 것 같다"고 미소 지었다.

선발 로테이션에도 합류할 예정이다. 다음 등판은 오는 18일 LG 트윈스전이 될 전망이다.

박 감독은 "다음 게임엔 투구수가 100개 안 넘는 선에서 계획하고 있다. 아프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로테이션 날짜에 맞춰 들어갈 계획"이라고 밝혔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dal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